

2015 모의 인문 1번

제시문 (가) 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관련이 없다고 본다. 각 개인이 맡은 역할에 충실 한다면 그 개인은 행복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시문 (가)의 로마사회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주인은 훌륭한 주인 노릇을 하고 노예는 훌륭한 노예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각각 행복한 것이다. 이는 운명에 따라 개인들의 역할이 결정된다고 보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즉 제시문 (가) 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므로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나) 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침을 볼 수 있다. 제시문 (나) 의 남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출유를 하려 한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불행해졌다. 만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집에 머무른다면 남편이 불행해지므로 이들의 행복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시문 (나) 의 남편은 혼인은 깨뜨릴 수 없다며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등하게 행복이 배분되어 있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운명을 거부한다. 이는 운명에 순응한 삶이 행복하다고 보는 제시문 (가)의 입장과 대비된다.

한편, 제시문 (다) 는 공리주의의 입장이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공동체의 이익은 각 개인의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이 커지면 공동체의 행복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제시문 (다)는 (나)와 같이 개인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이 상충되지만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비례관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개인의 모든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에 비해 제시문 (나) 는 개개인의 행복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